

I. 상담실적

- 상담기간: 2023. 11. 13.(월) 06:00 ~ 23:00
- 상담건수¹⁾: 945건

II. 주요의견 내용

○ 방송 호평(3명)

- 프로그램명 : 「동행」 ‘두껍아 헌 집 줄게, 새 집 다오’
- 방송일시 : 2023. 11. 11.(토) 1TV (18:00-18:55)

항상 「동행」을 시청하지만, 이번 편은 그중에서도 특히 마음 아프게 시청했다. 모텔에서 다섯 식구가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다. 출연한 아이들에게 옷 등 여러 물품을 후원하고 싶다.

○ 출연자 섭외 제언(4명)

- 프로그램명 : 「KBS 뉴스 9」 ‘뉴스를 만나다’
- 방송일시 : 2023. 11. 12.(일) 1TV (21:00-21:40)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출연했다. “신당 창당 하실 건가”라는 앵커의 질문에, “50%에서 하루마다 가능성이 올라가 오늘 한 59%쯤 됐을 거 같다”라고 답했다. 시청자 입장에서선 말장난으로 들렸고, 아직 신당을 창당한 것도 아닌데 왜 메인뉴스에서 섭외한 것인지 이해도 공감도 되지 않았다. 앞으로 해야 할 국정과제가 많다. 민생 관련 사안에 더 집중해주시기 바란다.

III. 청원현황

- 신규청원
 - 11건.
- 이슈청원 및 특이사항
 - 없음.

※ 참고: KBS홈페이지->시청자권익센터->시청자청원(<http://petitions.kbs.co.kr>)

1) 프로그램 별 인터넷 의견 건수는 집계에서 제외

IV. 일일 상담내용

1. 상담실적 : 총 945건

○ 형태별 분류

전화	인터넷	우편·FAX	방문	ARS ²⁾	계
498	119	-	-	328	945

○ 채널별 분류

1TV	2TV	라디오	DMB	인터넷	非채널	계
391	288	52	-	1	213	945

○ 내용별 분류

의견제시	단순문의	기타	계
221	724	-	945

○ 분야별 분류

방송	기술	경영	기타	계
687	3	72	183	945

시청자 의견	문 의
<p>【편 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그 콘서트」 - 편성 제언 <p>【보 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S 뉴스 9」 - 출연자 섭외 제언 <p>【스포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2024 프로배구V-리그 여자부」 - 방송 제언 <p>【시사·교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행」 - 방송 호평 ○ 「아침마당」 - 시청자 참여 제언 <p>【연예·오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 방송 호평 <p>【드라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말드라마 「효심이네 각자도생」 - 극본 제언 	<p>【방 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TV 생생정보」 - 「장어수육」 연락처 문의 38건 ○ 「6시 내고향」 - 「절임배추」 연락처 문의 37건 ○ 「주진우 라이브」 - 「진행자 하차」 문의 34건 ○ 「KBS 뉴스 9」 - 「진행자 하차」 문의 30건 ○ 「가요무대」 - 「방청」 문의 17건 <p>【기 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시청」 문의 2건 ○ 「수신기술」 문의 1건 <p>【경 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문의 29건 ○ 「전화교환」 문의 20건 ○ 「프로그램 구입」 문의 18건 ○ 「수신료」 문의 2건 ○ 「주차」 문의 2건 외 1건 <p>【기 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진 문의사항 포함 183건

2) ARS 항목 상세내용: 제보, 홈페이지문의, 프로그램 구매문의, 출연자 및 출연업체 전화번호 안내

2. 프로그램별 의견

의견	세부내용
[편 성]	
편성 제언	<p>○ 「개그 콘서트」(3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 11. 12.(일) 2TV (22:40-24:10) - 오랜 공백을 깨고 부활한 것 축하한다. 시간 맞춰 첫 방송을 시청했다. 그런데 편성 시간이 너무 늦어 부담 없이 보기엔 무리가 있었다. 직장인들의 경우 방송을 시청하면 다음날 출근하기 어렵다. 토요일이나 일요일 저녁 9시경에 편성이 된다면, 부담 없이 웃으며 시청할 수 있을 것 같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 외</p>
[보 도]	
출연자 섭외 제언	<p>○ 「KBS 뉴스 9」 ‘뉴스를 만나다’(4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 11. 12.(일) 1TV (21:00-21:40)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출연했다. “신당 창당 하실 건가”라는 앵커의 질문에, “50%에서 하루마다 가능성이 올라가 오늘날 59%쯤 됐을 거 같다”라고 답했다. 시청자 입장에선 말장난으로 들렸고, 아직 신당을 창당한 것도 아닌데 왜 메인뉴스에서 섭외한 것인지 이해도 공감도 되지 않았다. 앞으로 해야 할 국정과제가 많다. 민생 관련 사안에 더 집중해주시기 바란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 외</p>
[스포츠]	
방송 제언	<p>○ 「2023-2024 프로배구V-리그 여자부」 ‘현대건설:홍국생명’(2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 11. 12.(일) 1TV (14:20-17:10) - 현대건설과 홍국생명의 경기를 시청했다. 본인도 김연경 선수의 팬이고, 훌륭한 선수임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날 카메라가 김연경 선수 위주로 보여주고, 진행자들도 김연경 선수를 지나치게 언급해 보기 불편했다. 또한 홍국생명 위주의 해설도 공정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 외</p>

의견	세부내용
[드라마]	
극본 제언	<p>○ 주말드라마 「효심이네 각자도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 11. 12.(일) 2TV (20:05-21:25) - KBS 2TV 드라마를 애청한다. 그런데 이번 주말드라마는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아 시청 내내 답답함을 느낀다. 주인공 이효심(유이 분)이 가족을 위해 본인의 삶을 희생하는 모습이 구시대적이며 공감이 되지 않는다. 시청자들의 수준과 눈높이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 조금 더 현실적이고 공감할 수 있는 드라마를 만들어주기 바란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p>